

2024.02.29.(목)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4-02-29 오전 4:25

수정한 날짜: 2024-02-29 오전 4:32

2024.02.29.(목) 증권사리포트

한국콜마

이번 없는 수주 동향

[\[출처\] NH투자증권 정지윤 애널리스트](#)

과도한 주가 조정, 매수 기회로 삼을 것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74,000원 유지. 1분기 현재 별도기준 수주 동향은 +30% y-y를 상회하는 중. 글로벌 브랜드사의 신제품 출시와 아시아 공급망 확장, 인디 브랜드 수출 활로 개척으로 직수출 매출액(+53% y-y, 비중 8%) 레벨 업, 무석법인 60개 이상 고객사와 Sun 제품 출시 예정 등 업황 호조 지속됨

4Q23 Review: 아쉬운 영업외비용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516억원(+15% y-y), 영업이익 378억원(+338% y-y)으로 성과급 증분(+35억원) 감안 시 컨센서스 영업이익 부합. 영업외 연우 영업권, 미국 유형자산 손상차손 등 반영되며 순적자 465억원 기록한 점은 아쉬움

국내 매출액 2,143억원(+31% y-y), 영업이익 188억원(-12% y-y) 기록. 4Q22 중국법인 대손충당금 환입(78억원) 제거 시 실질 영업이익은 +38% y-y 성장. 4분기부터 SAP(기업용 ERP 소프트웨어) 운영 정상화로, 기존 Top 2 비중 고객사向 물량 출하와 신성장 인디 고객사의 안정적인 발주로 별도 기준 상위 고객사의 비중이 점차 탄탄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구조적 변화라는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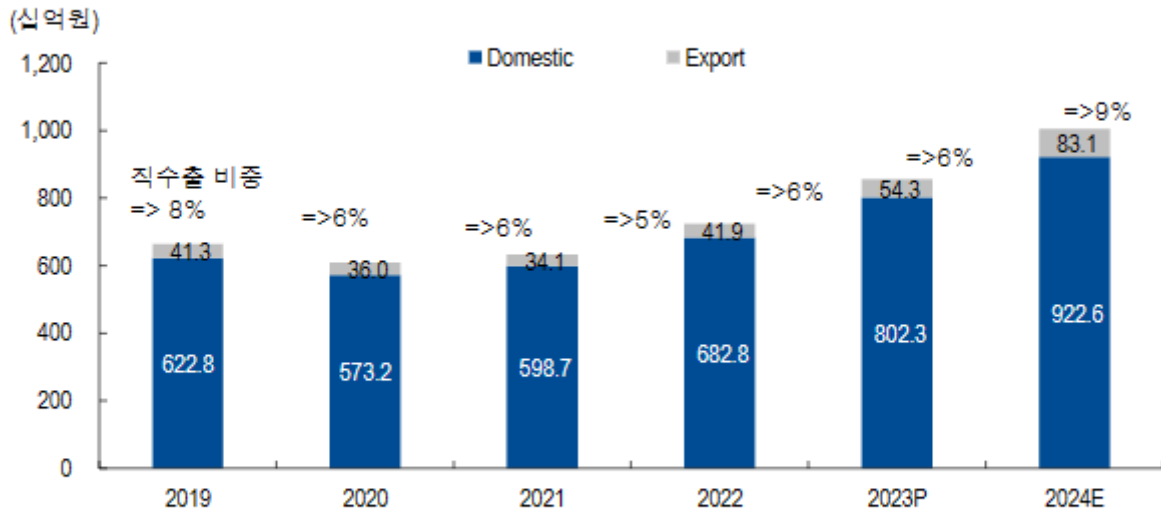
해외 ①중국 매출액 370억원(+18% y-y), 영업이익 6억원(흑자전환 y-y) 기록. 무석법인은 Sun, 쿠션, 파운데이션 등 상위 고객사들의 발주 품목 증가. ②북미 매출액 205억원(+10% y-y), 영업적자 29억원(적자축소 y-y) 기록. 미국은 동사가 처방을 보유한 1위 인디 고객사의 립 제품 중심의 안정적인 발주로 매출 고신장(+84% y-y) 이어갔으나, 캐나다는 상위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 장기화로 예상보다 더딘 매출 회복에 고정비를 상쇄하기는 아직 부족한 실정

HK이노엔 매출액 2,241억원(+4% y-y), 영업이익 225억원(+169% y-y) 기록. 연우 매출액 612억원(+18% y-y), 영업적자 2억원(적자축소 y-y) 기록

	2022	2023P	2024E	2025F
매출액	1,866	2,155	2,462	2,681
증감률	17.6	15.5	14.2	8.9
영업이익	73	137	204	245
증감률	-13.0	86.4	49.7	19.8
영업이익률	3.9	6.3	8.3	9.1
(지배지분)순이익	-22	6	92	122
EPS	-961	246	3,895	5,173
증감률	적전	흑전	1,482.6	32.8
PER	N/A	217.8	11.8	8.9
PBR	1.5	1.9	1.5	1.3
EV/EBITDA	16.8	11.9	8.4	7.2
ROE	-3.3	0.9	13.2	15.4
부채비율	99.6	103.1	96.2	88.2
순차입금	720	724	595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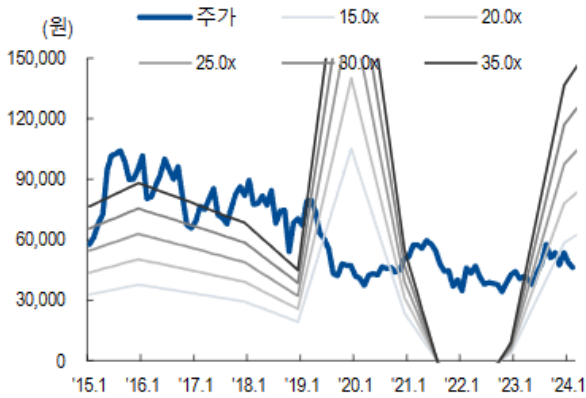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1. 한국콜마 별도기준 직수출 매출액 및 비중 추이 전망



자료: 한국콜마,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추정

그림2. 한국콜마 12M Fwd PER Band Chart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한국콜마 12M Trailing PBR Band Chart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솔루션

무난하게 실속있을 24년

[\[출처\] IBK투자증권 이견재 애널리스트](#)

23년에 이어 24년도 안정감 있는 성장세 유지

23년 동사는 전년 대비 15%의 매출액(1조 9,511억원) 성장과 105%의 영업이익(1,545억원) 성장세를 나타냄. 매출액 성장 보다 영업이익 성장세가 두드러진 원인은 수익성이 기존 사업부 대비 월등하게 높은 ESL(전자가격표시기) 매출 확대가 주요했음. 동사가 보유한 파워 솔루션 기술은 향후 HPC(고성능 컴퓨팅), EV 충전으로 사업영역 확대가 확실시되고 있어 향후 3년간 동사 실적은 큰 부침 없이 시장 기대치 충족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됨.

ESL 침투율 상승 이상 무

유럽을 시작으로 점차 보급률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ESL의 침투율은 현재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유럽은 가장 먼저 ESL을 사용한 지역답게 높은 보급률을 나타내며 안정감 있는 성장을 지속 중. 북미지역과 아시아 지역은 유럽보다 보급률은 떨어지지만 최근 임금 상승률이 가파르게 나타나 이를 상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ESL의 적극 도입 움직임이 확인됨. 근로자 임금이 높은 유럽과 북미시장은 ESL의 사용을 단순하게 가격을 표시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보다 능동적인 기능을 추가하기 시작. 가장 대표적 기능은 온라인 오프라인 가격을 연동 시켜주는 <다이나믹 프라이스>와 AI를 적용해 재고관리를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기능이 있음. 추가 기능 탑재는 결국 ASP 상승을 야기시켜 향후 동사의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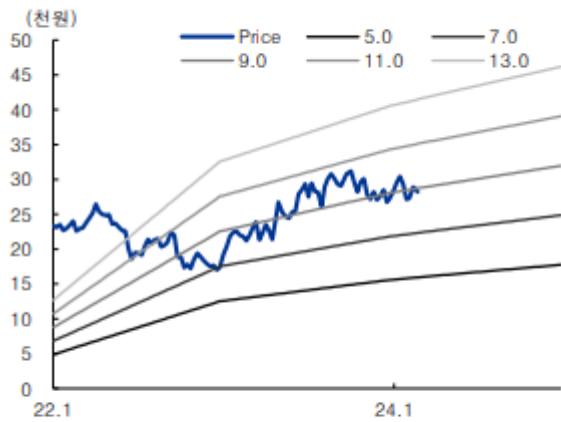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2,000원 유지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2,000원으로 유지. 42,000원은 24년 예상 EPS 3,119원에 Multiple 13.5배를 적용한 것으로 글로벌 ESL 보급 본격화 및 동사의 파워 솔루션 기술 중요도 증가에 따른 프리미엄을 반영.

(단위:십억원,배)	2021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153	1,695	1,951	2,053	2,232
영업이익	27	76	155	172	197
세전이익	26	50	145	169	184
지배주주순이익	13	47	125	157	174
EPS(원)	273	946	2,506	3,142	3,478
증가율(%)	-72.2	246.9	164.8	25.4	10.7
영업이익률(%)	2.3	4.5	7.9	8.4	8.8
순이익률(%)	1.1	2.7	6.3	7.0	7.2
ROE(%)	6.9	16.9	35.5	31.8	26.4
PER	82.3	18.4	10.9	9.0	8.1
PBR	4.2	3.0	3.3	2.5	1.9
EV/EBITDA	24.7	10.0	7.4	7.0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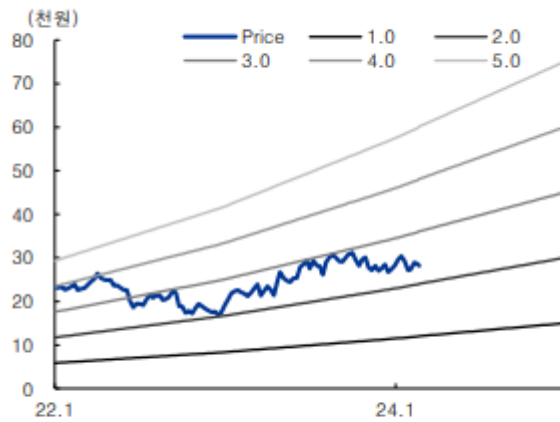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Forward PER Band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2. Forward PBR Band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경과조치 부담을 넘지 못한 주주환원

[\[출처\] 유안타증권 정태준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HOLD로 하향, 목표주가 4,000원으로 하향

4분기 이익은 370억원으로 당사 추정치 453억원과 컨센서스 408억원 하회. 보험손익은 전분기대비 38.4% 감소, 투자손익은 전분기대비 113.0% 증가. 보험손익은 예실차 악화로 감소, 투자손익은 FVPL 평가손실 축소로 개선. K-ICS비율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경과조치 이전 기준 18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다만 양호한 자본비율에도 불구하고 주당배당금이 당사 추정치 350원과 컨센서스 250원을 크게 하회하는 200원으로 결정된 점은 경과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경과조치 적용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강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따라서 2024년 예상 주당배당금을 기존 370원에서 250원으로 하향하며 목표주가도 기존 5,500원에서 4,000원으로 하향. 최근 주가는 배당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적정 가치를 넘어선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의견도 HOLD로 하향.

보험손익 전분기대비 38.4% 감소. 4분기 손해를 악화로 보험금 예실차가 악화되었기 때문.

투자손익 전분기대비 113.0% 증가, 보험금융손익 제외 시 전분기대비 7.5% 증가. FVPL 평가손실 축소에 기인.

CSM 신계약 CSM은 전분기대비 18.3% 증가, CSM 조정은 전분기대비 축소되면서 기말 CSM은 전분기대비 2.2% 증가.

자본비율 경과조치 전 기준 4분기 K-ICS비율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당사 추정치는 184.0%로, 전분기대비 6.4%pt 감소할 전망. 다만 주주환원 강화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 만큼 2024년도 예상 K-ICS비율은 기존 178.8%에서 190.4%로 상향.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십억 원, %)

	4Q23P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보험손익	35	-	-38.4	33	5.8
투자손익	24	-	113.0	24	1.5
영업이익	59	-	-12.9	53	12.7
영업외손익	-2	-	N/A	-	-
세전이익	57	-	-16.0	56	2.2
당기순이익	37	-	-27.9	41	-9.4

자료: 유안타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십억 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P	2024E
영업이익			386	410
세전이익			385	402
당기순이익			291	296
PER (배)			1.8	1.9
PBR (배)			0.15	0.15
배당수익률 (%)			4.6	5.3

주: 영업이익=매출총이익-판매비





한국가스공사
 대규모 손상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2024년
[\[출처\] 하나증권 유재선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35,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한국가스공사 목표주가 35,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별도 실적이 기대보다 양호했으나 해외 실적 부진 및 손상차손에 따른 세전이익 부진은 다소 아쉬운 지점이다. 한편 2024년 미수금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이 재개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추가 일회성 비용 또는 기말 환율 변화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발생 여부가 중요해졌다. 단기적으로는 총괄원가 조정 시점에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 여부 및 2024년 적정투자보수 증가 규모 확인이 필요하다. 2024년 기준 PBR 0.26배다.

4Q23 영업이익 5,296억원(YoY -52.6%)으로 컨센서스 상회
 4분기 매출액은 10.6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41.6% 감소했다. 판매가격이 하락했고 판매실적도 부진했던 영향이다. 도시가스용, 발전용 각각 전년대비 2.4%, 24.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5,29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52.6% 감소했다. 해외는 과거 높은 원자재 가격의 기저효과로 대체로 부진했다. 국내는 미수금 관련 이자비용 보전이 반영된 가운데 적정투자보수 증분에도 불구하고 4Q22 발전용 원료비 차익 정산 등 일회성 이익 기저효과로 감익을 기록했다. 취약계층 요금 지원금액 관련 비용은 100억원 미만으로 미미한 가운데 운전자본 감소로 인한 도매공급비용 총괄원가 정산의 부정적 영향이 930억원 가량 반영되었다. 한편 세전이익은 이라크 주바이르, 모잠비크, 호주 Prelude, 국적선 LNG 2척, 수소충전소와 생산기지 등 투자자산 손상차손 8,271억원이 반영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

정부 정책으로 배당 재개 가능성 존재. 기말 환율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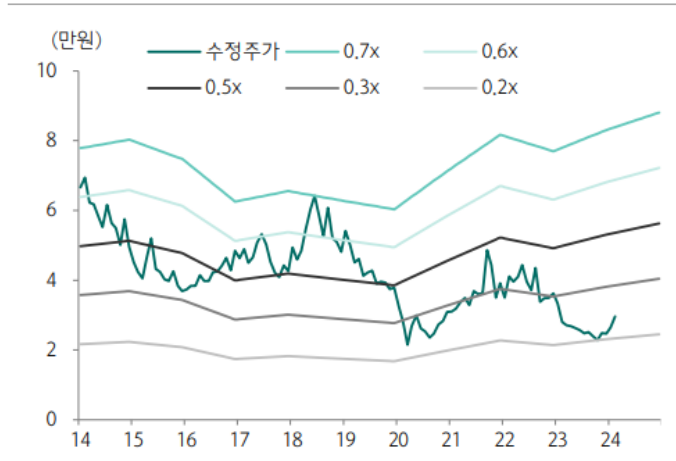
2023년 말 기준 전체 미수금 15.8조원 중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13.0조원으로 전분기대비 0.5조원 증가했다. 아직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 원료비는 적정 수준 대비 낮게 형성된 상황이다. 2024년 5월 총괄원가 정산에서 요금 인상이 없다면 빠른 회수에 대한 기대감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편 과거 배당 중단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미수금 추이와 별개로 경영평가 편람 변화로 인해 배당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2023년은 2022년의 역기저로 감익이 불가피했으나 2024년은 일부 이자비용 보전 착시를 제외하면 경상적인 이익 레벨로 복귀가 예상된다. 기말 원/달러 환율 급등이나 일회성 비용 등이 없다면 유의미한 배당을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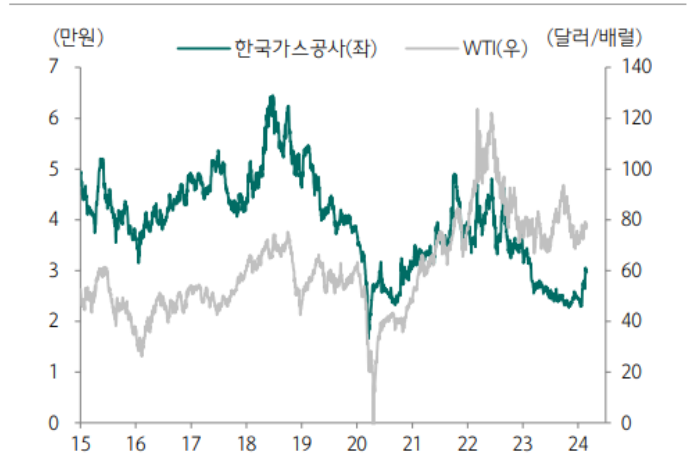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27,520.8	51,724.3	44,556.0	37,162.3
영업이익	1,239.7	2,463.4	1,553.4	2,406.6
세전이익	1,367.3	1,945.2	(861.9)	1,025.5
순이익	950.8	1,493.1	(761.2)	769.1
EPS	10,299	16,174	(8,246)	8,332
증감율	흑전	57.04	적전	흑전
PER	3.80	2.24	(3.00)	3.56
PBR	0.40	0.32	0.23	0.26
EV/EBITDA	10.65	11.45	12.52	9.54
ROE	11.63	15.67	(7.70)	7.71
BPS	97,728	112,005	105,515	113,847
DPS	2,728	0	0	2,000

도표 2. 한국가스공사 12M Fwd PB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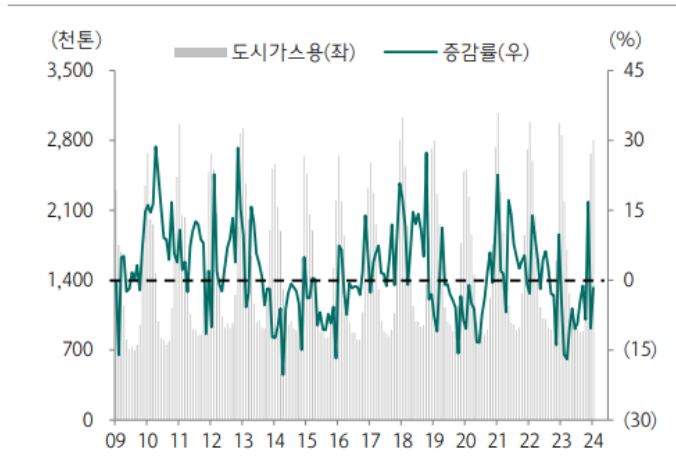
자료: 한국가스공사, 하나증권

도표 3. 한국가스공사 주가와 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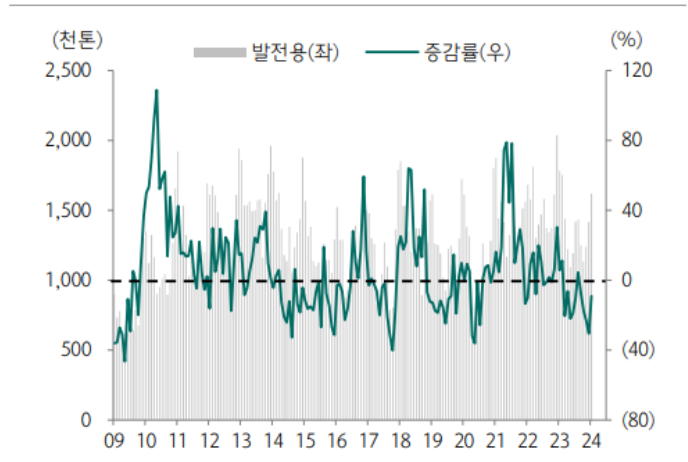
자료: 한국가스공사, 하나증권

도표 4. 도시가스용 판매량 (2024년 1월 YoY -1.7%)



자료: 한국가스공사, 하나증권

도표 5. 발전용 판매량 (2024년 1월 YoY -9.2%)



자료: 한국가스공사, 하나증권



폰드그룹

패션사업 성장 + 주주환원정책으로 진정한 밸류업

[\[출처\] 하나증권 김성호 애널리스트](#)

인적분할로 순수 패션의류 전문업체 탄생

폰드그룹은 상장사 코웰패션 패션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지난 2월 2일 상장된 패션의류 라이선스 생산 및 판매 전문업체이다. 기존 코웰패션의 내 '엘엔피브랜드, 월패션' 등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자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금번 인적분할 및 흡수합병을 통해 폰드그룹은 순수패션의류 전문업체로의 성장 본격화가 기대된다. 동사는 퓨마, 아디다스를 비롯한 글로벌 브랜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기획, 제조, 디자인, 생산판매까지 영위한다. 기존에는 홈쇼핑 매출 비중이 70% 이상이었으나 24년부터 브랜드 확보를 통해 고수익성 이커머스 사업(자사 및 제휴 홈페이지, 오픈마켓 등) 비중 확대와 슈퍼드라이, FIFA1904, BBC earth 브랜드를 주력으로 오프라인 브랜드 사업을 통한 외형 확대와 수익성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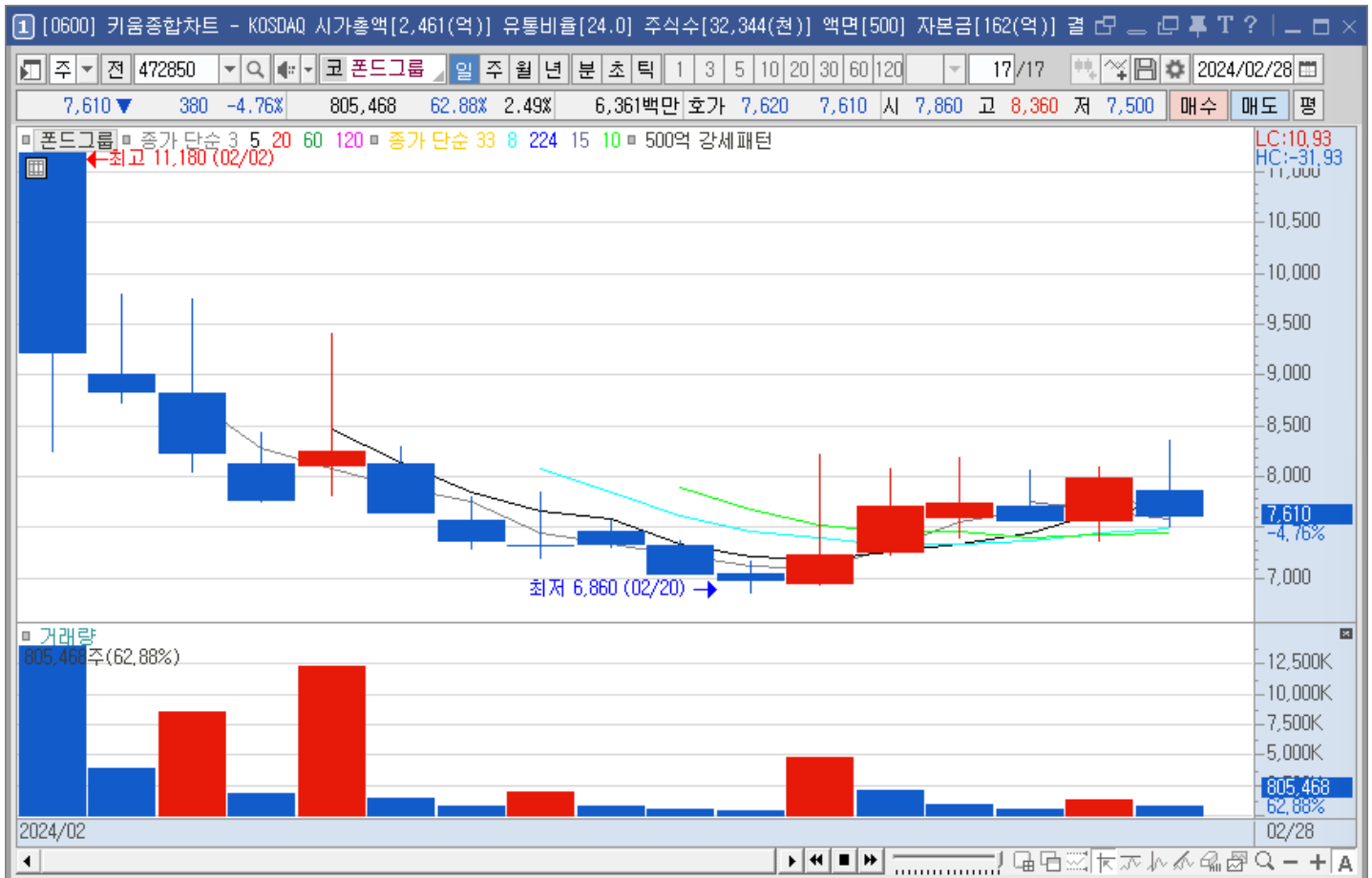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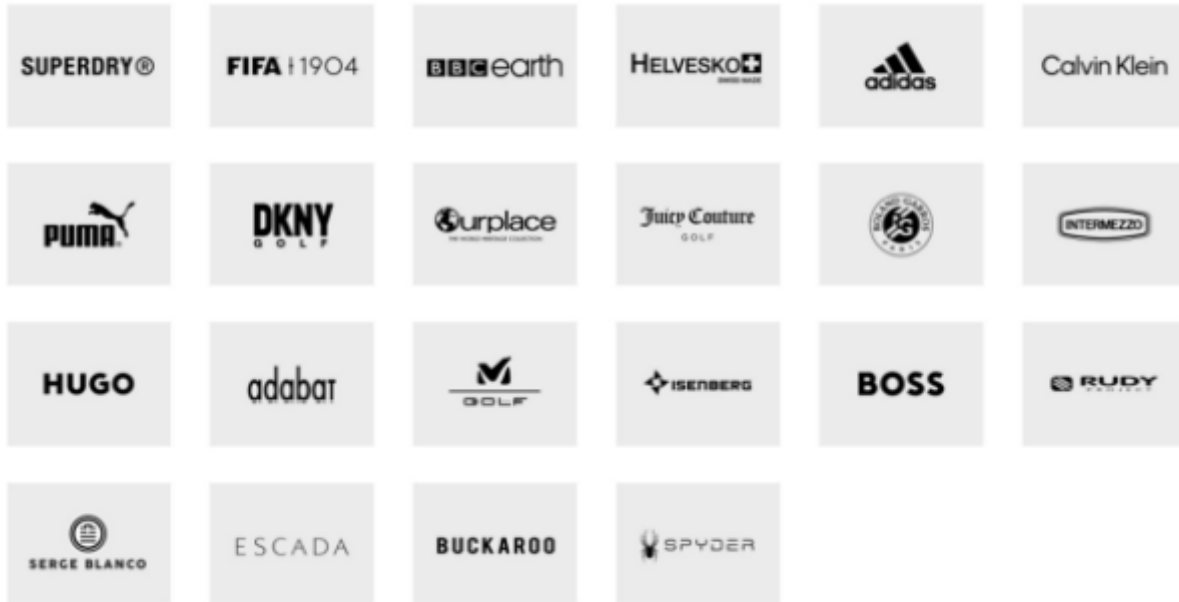
브랜드 다각화를 통한 실적 성장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주주환원

동사는 23년 3월 글로벌 캐주얼브랜드 '슈퍼드라이' 아시아, 태평양 IP를 확보하여 자체 브랜드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슈퍼드라이는 현재 아시아 10개국에 약 47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며 아시아 지역 내 사업 확대가 본격 진행 중으로, 24년 7월 브랜드 론칭이 예정됨에 따라 동사의 해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슈퍼드라이 영국 본사 향 OEM 사업도 10년간 5억달러 장기 공급 계약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기에 안정적인 탑라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폰드그룹은 지난 8월 스포츠 의류 전문업체인 스파이더(SPYDER)의 국내 판권을 보유한 브랜드유니버스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다. 스파이더는 22년도 기준 국내 약 110개의 매장을 보유하며 매출액 800억원 이상 시현한 브랜드로 향후 폰드그룹의 브랜드 다각화 및 사업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편 동사는 지난 2월 27일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을 통해 2024년~2026년 주주환원정책안을 공개하였다. 주주환원율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20~30%를 원칙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과거 코웰패션에서도 꾸준한 배당성향을 유지했던 것을 고려해볼 때 향후 주주환원정책도 현금배당이 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된 상황에서 금번 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 중인 동사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024년 매출액 5,053억원, 영업이익 508억원 전망

분할 이전 코웰패션 패션사업부 2023년 매출액 4,067억원, 영업이익 494억원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추정치는 기존 핸드백 사업과 고수익성 임대사업이 포함되었다. 분할 후 핸드백 사업, 임대사업이 제외되었음에도 브랜드 확보를 통한 이커머스, 오프라인 브랜드 사업 본격화와 해외 매출 성장으로 YoY +48.4% 매출액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제품 판매 추이에 따라 실적 상향도 가능하며, 신규 브랜드 비용이 예상되지만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아쉬웠던 전자, 운송사업과 분리되며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기대된다. 24F P/E 5배로 실적 성장 본격화, 지속적인 주주환원을 시행하는 의류 전문업체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한 시점이다.

도표 1. 펀드그룹 보유 및 운영 브랜드



랩지노믹스

비용 처리의 해를 지나 3분기 LDT 효과 시작

[출처] NH투자증권 박병국 애널리스트

자회사 상각 등 1회성 비용 처리로 4분기 적자 전환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5,000원으로 17% 하향. 1)QDX의 LDT 전환 시점 및 두번째 신규 클리아랩 이익 시점 보수적으로 변경, 2)국내 법인의 이익률 둔화에 따라 '26년 EBITDA를 기존 대비 하향했기 때문

연결 4분기 매출액은 223억원(+19% y-y), 영업이익 -52억원(적자전환)으로 컨센서스 대비 적자 폭 확대. 코로나19 매출액은 예상했던 대로 없어졌으나 일회성 영업비용이 4분기에 크게 반영되면서 적자 전환. 루하PE의 경영권 인수 이후 '23년 한 해 동안 진엔투자파트너스, 제노코어, 큐어로젠 등 자회사가 상각처리되었으며, 클리아랩인 QDX M&A 컨설팅 비용 또한 적극 반영. 영업관련 일회성 비용은 4분기까지 대부분 반영되었으며 영업외비용은 1분기 발생 가능

'24년 3분기부터 LDT 전환 효과 발생 추정

'24년 연결 매출액은 1,113억원(+52% y-y), 영업이익 47억원(흑자전환), 별도 한국법인 매출액은 465억원(-9% y-y), 영업이익 -10억원(적자전환)으로 추정. 한국법인은 '23년 3분기까지 존재했던 코로나19 매출의 부재와 이로 인해 늘어나는 판관비율, 원가율 효율화가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성장의 핵심인 미국 클리아랩은 3분기부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첫번째 클리아랩인 QDX의 분자진단(매출 40%) 서비스 제품은 기존 IVD에서 LDT로 전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분기 말에 상당부분 완료, 3분기 원가 개선 효과 발생 가능. '24년 미국 법인 매출 648억원, 영업이익 57억원 추정

	2022	2023P	2024F	2025F
매출액	145	73	111	147
증감률	-28.5	-49.3	51.7	31.7
영업이익	66	1	5	17
증감률	-36.7	-98.7	428.9	262.6
영업이익률	45.7	1.2	4.2	11.7
(지배지분)순이익	48	-3	4	14
EPS	710	-44	52	186
증감률	-41.8	적전	흑전	261.3
PER	4.4	N/A	70.4	19.5
PBR	1.0	1.4	1.3	1.2
EV/EBITDA	1.4	22.2	14.1	6.8
ROE	26.4	-1.6	1.8	6.4
부채비율	19.1	18.7	17.5	15.9
순차입금	-118	-97	-93	-99

단위: 십억원, %, 원, 배



테스

1Q24 영업흑자 전환 전망

[\[출처\] 키움증권 박유악 애널리스트](#)

4Q23 영업적자 76억원, 기대치 하회

테스의 4Q23 실적이 매출액 260억원(-6%QoQ)과 영업적자 76억원(적자지속)을 기록하며, 당사 예상치(매출액 289억원, 영업적자 51억원)을 하회했다. 매출액은 당사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크게 나타나며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다만 이러한 실적 부진이 '지난 하반기에 집중됐던 고객들의 메모리 반도체 감산과 반도체 장비투자 급감' 때문이므로, 향후 반도체 업황의 회복과 함께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Q24 영업이익 55억원, 영업흑자 전환 전망

1Q24 실적은 매출액 552억원(+112%QoQ)과 영업이익 55억원(흑자전환)을 기록하며, 전 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회복될 전망이다. 지난 하반기에 지연됐던 고객사향 신규 장비의 매출 인식이 진행되고, 삼성전자의 메모리 전공정 장비 투자도 재개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 상반기 동안 '기존 공장에서의 DRAM 공정 전환'과 '평택3 공장에서의 전공정 장비 투자'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테스의 실적 개선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 동안 지연됐던 SK하이닉스향 신규 장비의 공급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며, 테스의 향후 실적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6,000원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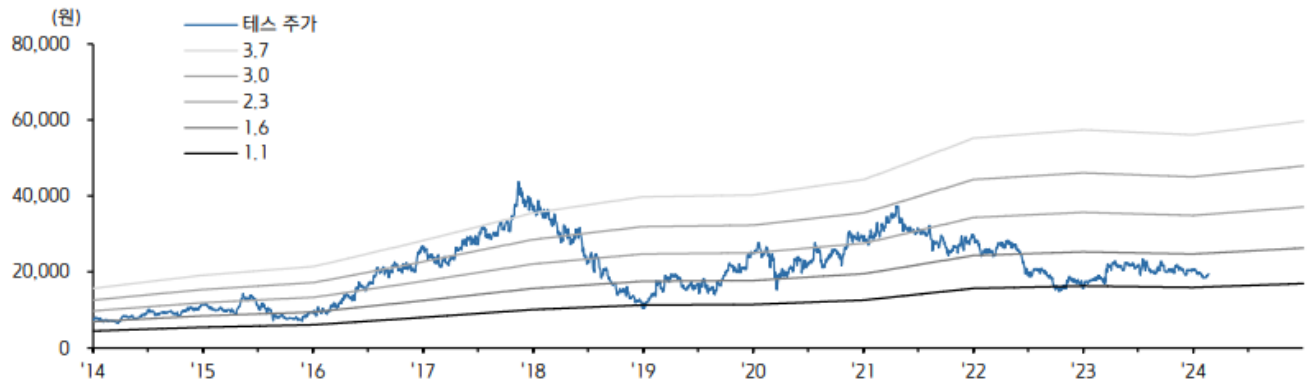
당사는 지난 연말-연초 메모리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종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해 왔다. DRAM과 NAND의 낮아져 있는 가동률이 신규 장비의 투자를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기간을 지나오며 메모리업체들의 신규 투자는 부재했으며, 테스의 주가도 기간 조정을 보였다. 메모리 전공정 장비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センチ멘트가 여전히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12개월 trailing P/B 1.2배 수준의 주가는 이러한 우려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ASML과 Lam Research, AMAT 등이 메모리 장비 업황 회복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올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공정 CapEx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업 내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테스에 대한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26,000원을 유지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358.0	146.9	222.5	311.1
영업이익	55.9	-5.9	26.4	51.1
EBITDA	61.3	-0.2	32.4	57.0
세전이익	54.3	2.3	31.8	53.3
순이익	46.8	1.6	27.7	44.2
지배주주지분순이익	46.8	1.6	27.7	44.2
EPS(원)	2,366	79	1,401	2,237
증감률(%YoY)	-36.8	-96.6	1,665.1	59.6
PER(배)	6.6	237.2	13.4	8.4
PBR(배)	1.01	1.24	1.17	1.05
EV/EBITDA(배)	3.8	-1,286.3	9.8	5.9
영업이익률(%)	15.6	-4.0	11.9	16.4
ROE(%)	15.5	0.5	9.0	13.2
순부채비율(%)	-25.0	-47.6	-33.7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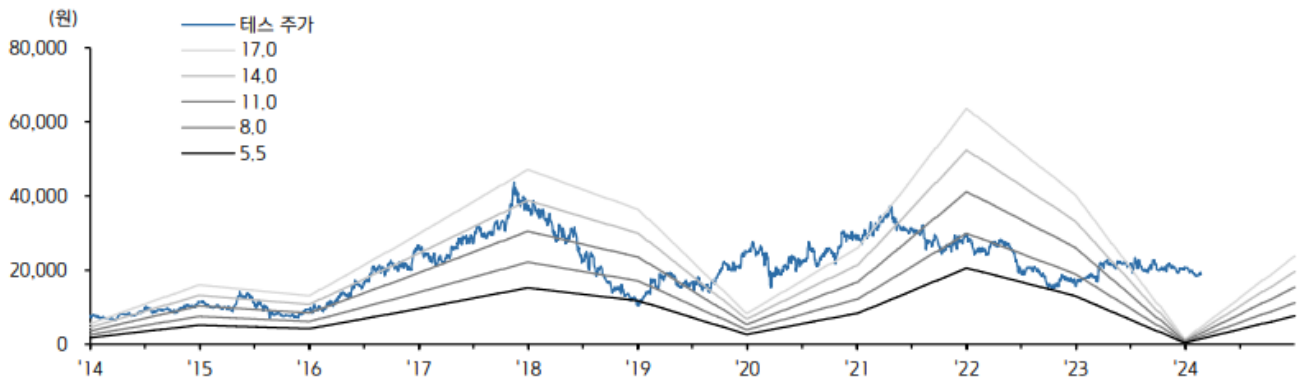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테스 12개월 Trailing P/B Ratio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테스 12개월 Trailing P/E Ratio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